

가을 순회전 ‘정물세계’ 사물을 통한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

오는 9월 3일(화)~29일(일)까지 달성문화센터 백년갤러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 순회전 ‘정물 세계’展을 오는 9월 3일(화)~29일(일)까지 달성문화센터 1층 전시실(백년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순회전 ‘정물 세계’展은 사물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서양화 작품을 비롯해 판화, 사진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번 순회전은 김수명, 손일봉 작가를 비롯해 총 12명의

작가의 작품 14점이 전시되며 각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작품에 녹아들어 관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한다. 이러한 감정적 전달은 작품을 단순한 묘사를 넘어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김정화 이사장은 “앞으로도 달성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공단 내 시설에 전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수

준 높은 예술 감상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순회전 ‘정물 세계’展은 사전 예매와 관람료 없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4점의 선별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센터 안내 접수처(☎659-4231~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푸른방송이 하나카드와 만나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하나카드 [렌탈 플러스]로 푸른방송 이용료 자동납부하면!



푸른방송 제휴 하나카드 자세히보기

- 1/ 푸른방송 매월 최대 **13,000원 할인**
- 2/ 스타벅스 **5% 할인** (월 5천원한도)
- 3/ 온라인쇼핑 **3% 할인** (월 5천원한도)

*푸른방송 제휴 하나카드 [렌탈 플러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청구할인

가입상담문의 **053-551-2000** www.gcs.co.kr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

오는 9월 7일(토)~10월 6일(일)까지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토)~10월 6일(일)까지 총 30일간 강정보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19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김영진, 곽훈 작가부터 청년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작가들까지 총 40명이 참여한다.



강효연 예술감독은 1974년도 당시 청년들이 만들어 낸 ‘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기념해 청년작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역사성과 지역성, 대중성까지 고려한 총 40명의 작가를 선정했으며, ‘낭만, 영원, 꿈, 믿음, 도전, 유토피아’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래도, 낭만(Against All Odds)’이라는 전시주제를 정했다.

본 전시주제를 통해 ‘생과 사’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 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인간사 너머에 영원함이 있을 거라고 믿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멸과 영원을 갈망하는 욕망과 바람의 형태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의 경우 70년대 현대미술을 이끈 곽훈 작가의 퍼포먼스와 김영진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미디어, 설치, 조각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된다. 또한 달성문화도시센터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 5명의 수상작 전시와 달성미술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강정보 디아크 광장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중들과 함께 즐기며 예술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며, 개막식은 9월 7일(토) 오후 7시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에 자세한 내용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홈페이지 (www.dalseong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성문화재단 ☎053) 668-424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